

오늘의 날씨 | 맑음 | 22°C/34°C

2018년 7월 19일 목요일 (음력 6월 19일)

석간

그린세탁

구독신청 02-722-8165

제 1094호



## “폭염 속 시원한 물줄기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18일 뜨거운 태양으로 말미암아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올라갔다. 한동안 더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광화문 분수대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과 시민들의 모습.

박용국 기자

## 北核 개발로 북한주민 방사능 피폭…피해는?

### NKDB 북한인권감시본부 “방사능 노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알 권리 침해당했다”

북핵 문제 공을 미국에 돌려서일까. 어느 날 느슨해진 관심에 방사능 폭포 위험에 노출된 북한 주민들만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사)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감시본부(이하 본부)가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문제’를 다시금 다뤄내 주목받고 있다.

본부 측은 “올해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를 취재하기 위해 방북한 남측 기자단에게 실험장 옆 개울물을 마셔보라고 권한 북측 기자가 권한 사람에게 먼저 마셔보라는 도발적 역제의에도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고 밝히고, “북한의 핵 개발 과정에서 방사능 폭포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북한 주민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이어 본부 측은 구체적인 현장 북한 주민들의 피해 사례들을 제시한 후, “핵 개발로 인해 북한 주민이 겪는 피해 중 첫 번째는 방사능 노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면서 “북한 당국은 중앙당 군수공업부 산하 131지도국(핵 개발국으로 군수공업부 산하지만 최고지도자 직속 비밀기관)을 통해 핵개발과 관련된 작업을 은밀히 추진하고 방사능의 유해성을 대한 정부뿐만 아니라 시설 건설 작업에 동원되는 인력에게 핵 시설 건설 작업인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본부 측이 건강상 피해에 대한 증언을 확보한 북한의 핵 관련 시설은 세 군데로 평안북도 영변군 핵 시설, 황해북도 평안군 우리동 빙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주변 아니라 시설 건설 작업에 동원되는 인력에게 핵 시설 건설 작업인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본부 측은 “핵 시설 건설이나 핵 물질 채굴에 필요한 노동력은 군 복무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거나(131지도국 산하 구성원, 군복은 입으나 인민무력성 소속이 아님) 풍계리 핵 실험 간도 건설에 정차법을 동원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밝히고, “두 경우 모두 핵 시설 건설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 사실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이러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주민이 인지하게 되고 사회적 공포성이 생성될 경우 정권의 핵 개발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본부 측은 “북한인권감시본부는, 기존 NKDB의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인권 문제 제기가 북한 내부에 실제적인 과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증언을 다수 확보하였는데, 북한 내 ▶사형 ▶구금시설 ▶종교자유 ▶해외노동자인권 ▶해·생물·화학 무기와 인권 ▶마약류 ▶UN권고이행 ▶군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내외 인식제고를 위한 문제제기를 통해 실제적인 변화와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활동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관련증언2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주적조사 및 관리를 진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향후 이를 주민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과 축적을 바탕으로, 산하 북한인권감시본부를 통해 특정 인권 침해 항목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정례적 보고서 출간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산하 정착지원본부가 인권피해자, 귀환국민포로,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응교육, 심리상담, 정착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인 지원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인권감시본부는, 기존 NKDB의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인권 문제 제기가 북한 내부에 실제적인 과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증언을 다수 확보하였다.

그 중에서도 북한인권감시본부는, 기존 NKDB의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인권 문제 제기가 북한 내부에 실제적인 과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증언을 다수 확보하였다.

그 중에서도 북한인권감시본부는,

홍은혜 기자

## 장로교의 뿌리 스위스 종교개혁 500주년 기리는 기념대회 열린다 2019년은 스위스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 출범식’이 6월 28일 오후 3시부터 백석대 백석비전 센터 404호에서 개최됐다. 1519년 1월 1일 마태복음 강해설교를 시작으로 스위스에서 전개된 츠프링글리의 종교개혁은 2019년에 500주년을 맞이한다. 스위스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고자 출범한 기념대회는 1부 예배와 2부 사업계획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예배는 고신대 이신열 교수와 사회를, 함께 찬송가 ‘큰 영광중에 계신 주’를 부르고 장신대 조용석 교수, 합신대 박상봉 교수, 총신대 안인섭 교수가 기도를 했다. 이어서 500주년 기념대회장인 백석대 주도홍 교수가 출범사를 전했고,

평택대 안명준 교수가 요한복음 1:9-14절을 봉독한 이후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 목사가 ‘육신이 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어 집행위원장 안양대 이은선 교수와 광고를, 신반포중앙교회 김지훈 박사가 축도를 전했다. 2부에는 백석대 주도홍 교수와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500주년 기념대회의 자문위원에 박종화, 김명혁, 손봉호, 김영한, 장종현, 김영복, 오정호, 김남준, 이재훈, 화종부, 권숙, 서한국, 임석순, 양병희, 최종천, 이찬수, 장현승, 박광서, 박완철, 권성수, 이규현, 박성규, 박영돈, 최홍준, 이수영 목

사가 참여한다.

학술위원회에는 이신열, 이은선, 박상봉, 강경립, 김재성, 안명준, 최현범, 조은식, 이승구, 소기천, 안인섭, 이경직, 유해무, 박경수, 조용석, 한병수, 박정식, 변종길, 김영주, 신원하, 김지훈, 김상구, 이현승, 장세훈, 정요석, 서창원, 이승진, 유창형, 이상웅, 정원래, 우병훈, 유태화, 박찬호, 김신국, 이남규, 안상혁, 조성재, 임원택, 배정훈, 곽인섭, 박용규, 이동영, 김요셉, 양신혜, 주도홍 등 약 50명의 신학자들이 참여한다.

발기인에는 이신열(고신대), 이은선(안양대), 박상봉(합신대), 강경립(안양대), 김재성(국제신대), 안명준(평택대), 최현범(부산중앙교회), 안인섭(총신대), 이경직(백석대), 조용석(장신대), 김지훈(신반포중앙교회), 김상구(백석대), 이현승(백석대), 정요

석(세움교회), 유창형(칼빈대), 정원래(총신대), 박찬호(백석대), 김요셉(총신대), 주도홍(백석대), 곽인섭(서울백석대학교), 공구석(천안백석대학교), 이장형(청수백석대학교), 양신혜(대신대), 유해무(고신대), 신원하고(신대), 이상웅(총신대) 가 있다.

500주년 기념대회 임원에는 대회장을 주도홍 교수를 맡고, 공동대회장에는 강경립, 김재성, 안명준, 소기천, 최현범, 유해무, 이승구, 박정식, 변종길, 안인섭, 정미현 교수가 맡는다. 집행위원장에는 이은선 교수, 집행위원장에는 이신열, 유창형, 조용석, 양신혜, 김지훈, 이경직 교수가, 총부에는 박상봉 교수, 협동총무에는 김요셉, 박정훈, 이승진, 김상구 교수가, 간사에는 이현승 교수가 참여한다.

노형구 기자

## 근로장려금 개정안,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 목회자 가정 유리

### 세금환급액 형태로 지급, 종교인 과세에 부담 덜어

2018년도 근로장려세제(EITC)의 규모와 지급 범위가 2017년도 대비 무려 3배나 뛴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을 지급된다. 2017년에 근로장려금은 모두 166만 가구에 1조 2천억원이 지원됐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가구나 자영업자 기정에 가구 수,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연간 소득액에 맞춰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저 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증강시키고자 2009년부터 시작됐다.

부부 연간 소득액을 합산하여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미만, 혼별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EITC 지급 기준에 충족된다. 또한 가구원의 총 재산액을 합쳐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지급 가능하다.

이로서 단독가구는 연간 최대 85만원의 지원금에서 150만원을, 혼별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을,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관 회의를 열어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하여 3조 8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해 투자 촉진을 확대하는 주경안을 8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근로장려금(EITC)은 세금환급 방식이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 원, 혼별이 가족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 원 미만이면 지원 기준에 충족된다. 이어 그는 “이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자이나 사업소득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선택에서 근로소득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며 “목회자의 연간 소득지원의 체감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장려금 지원은 정부의 지원 예산이 아니라 조세제출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지원될 것”이라며 “한 해 한 번 지급해던 것을 한 해 두 번으로 나눠 지급해 소득지원의 체감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전했다.

제 개편방안 뿐 아니라 공기업 투자 확대, 기금운영계획 변경, 내년부터 졸업 후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 대하여 월 60만 원 지원, 예비비로 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20%나 확대된 60만명에게 내년도 일자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전년도 대비 보다 30만원으로 인상되는 개정안도 담겨있다.

한편 언론 인터뷰에서 흥의대 배원기 교수는 2018년도부터 시작된 종교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근로장려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목회자 가정에게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인회계사이자 흥의대 경영대학원에서 회계 및 세법 등을 가르치는 배원기 교수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목회자들은 금년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정부의 근로 보조금 확대로 종교인 과세에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근로장려금(EITC)은 세금환급 방식이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 원, 혼별이 가족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 원 미만이면 지원 기준에 충족된다. 이어 그는 “이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자이나 사업소득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선택에서 근로소득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며 “목회자의 연간 소득지원의 체감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 샬롬나비, 장신대 동성애 논란 관련 우려의 논평

행동하는 신학자·목회자들의 모임인 ‘샬롬을 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9일 논평을 통해 장로회신학대학교 ‘동성애 무지개’ 신학 사례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하고 학교 측에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장로회신학대학 ‘동성애 무지개’ 신학 사례는 선지동산의 영적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건”이라 지적하고, “예장통합 총회가 장신대 ‘동성애 무지개’를 막지 못하면 통합교단이 무지개로 뒤덮일 것”이라 경고했다.

과거 채플 시간 당시 학생들은 동성애 성소수자 등을 성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몸에 두른채 예배를 드렸는데, 샬롬나비

는 이에 대해 “노아 언약의 왜곡”이라 지적하고, “장신대는 (이미) 친동성애 신문 및 각종 친동성애 행사로 인하여 많은 물의를 아기시켰다”면서 “장신대 당국 책임자들의 태도들은 교육적인 대책보다는 친동성애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장신대 학생들 가운데 커밍아웃 학생이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경고하고, “미국 연합장로교(PCUSA) 및 프린스턴신대는 동성애를 허용하면서 정체성을 상실했다”며 장신대 동성애 무지개를 막아 통합교단이 동성애 무지개에 뒤덮히 말 것을 요청했다.▶관련논평4면

조은식 기자

## 대북제재 지속으로 北결핵 치료 어려움

미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었음에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에의 제재가 풀리지 않아 결핵 환자의 치료와 전염 예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P는 북한의 중앙 결핵 예방 연구소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북한의 결핵 환자 19만 명의 치료를 지원했던 세계기금의 지원 중단으로 북한의 결핵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제내성 결핵(MDR-TB) 환자들이 많은 평양이나 대도시를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외교관들도 결

핵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2010년부터 1억 달러 이상을 북한의 결핵 퇴치를 위해 지원했던 국제원조기구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이 이달 초부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세계기금은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원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평양뉴스

## 북핵 개발 과정에서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실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발췌 내용 전문

### ◆유해성에 대한 정보 부족

“건강에 안 좋겠구나,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아요.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안 해요. 그걸 신경 쓸 새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50대 여, 평양시)

### ◆유해성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길주군 수질에 대한 사회 인식

“종례리는 기본 거기서 일하는 애들이 다 정치범 죄수들이었어요. 땅 파고 간도 파고 이리는 애들이 다 죄수 애들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아파도 그게 방사능 때문에 아파도 그런 연관은 못 시켜요. 길주에 장애인이 많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길주 물이 나쁘다고, 거기 길주 물이 제일 나쁘다고. 그게 핵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죠.” (40대 남, 양강도 혜산시)

### ◆피해 사례

“김정은이 이번에(2018년 1월) 국가과학원 현지지도 나갔어요. 국가과학원에 혁명사적지 해설하는 여자과장이 있어요. 이름이 강화숙이에요. 그 남편이 어디 원자력인지 모르겠는데, 원자력 하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평생 그거 당위원회에서 검사한대요. 검사. 이 사람 안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건강상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거기는 배급도 계속 입쌀만 공급해주고 따로 그저 국가가 당 위원회에서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주고. 핵 개발하고 이런 데서는 몸에서 변화 일어나는 걸 계속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몸이 편치 못해요.” (50대 남, 평양시)

### ◆131지도국 주도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광산 군인 동원 및 피해

“그런 거 있지요. 핵 개발하는데 황해북도 평산군(군), 우라늄 나오는 광산이란 말이에요. 군인들 뚱뚱 거기로 들어밀어 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키면서, 기름이나 공급해서. 우리 때 그 131지도국이라고서 원자력, 우라늄 캐는 군대가 있거든요. 저기 가서 우라늄 방출하는 애들은 암만 잘 먹여도 몸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대에서도 실실 앓는다. 이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군인 애들한테 우라늄 캐는 걸 시키죠. 비밀이 엄수되어야 하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출퇴근시키면서 하려면 비밀다 노출되니까요. 현역군인들이 들어가서 다 하는 거죠. 그 방사능을 다 억제해서 나오는 줄 알지 그것 때문에 몸에 피해를 입는 줄은 몰랐겠죠.” (40대 남, 평양시)

### ◆군인 동원 및 피해

“이런데서 군복무 하는 사람들은, 일반 군인은 10년인데 이런데서 군복무하면 5년 밖에 안 해요. 친구 동생도 이쪽에서 했다던데. 5년 째 하고 왔어요. 근데 개가 보니까 몸이 안 나는 거예요. 잘 먹어도 몸이 안 나더라고요.” (40대 남, 양강도 혜산시)

### ◆군인 동원 및 피해

“그런 사람들은(핵 관련 시설 군복무자) 국가적인 보호대상이에요. 당일꾼이 하나 그 사람 가정에 불고, 일반 주민이 불고 해서 그 사람들이 중한 일 생기거나 힘들거나 하면 돌봐줘요. 돈도 대주거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래 못살아요. 담당들이 다 각 당, 기관 안에 있어요. 내가 본 거는 윤영철이라는 가족인데 (근무지가) 어디 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슨 핵을 개발을 하는데 몇 군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맨 마지막 굴에서 했었는데도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불구자가 되어서 나오니까 국가에서 돌봐줘요. 가정을 온전한 여자 구해서 결혼을 시켜주고 가정을 꾸려주고, 국가에서 돌봐 준다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일반 주민들이) 다 불어서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50대 여, 함경북도 청진시)

### ◆군인 동원 및 피해

“방사능, 오염 이런 거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걱정하죠. 근데 그런 거를 알긴 아는데 우리가 말한다고 뭐가 되는 일이 아니니까. 길주 풍계리에는 임신부들이 태아가 잘못돼서 나오고 그렇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게 퍼진지 오래됐죠. 나 있을 때도 왕왕 소리가 들었는데. 그 때 그거 다 알고 있어도 내놓고는 말을 못해요. 다 수군수군하지.” (50대 여, 황해남도 청진시)

### ◆생태계 변화 및 기형아 출산

“핵 개발 그런 거 때문에 별도 없어지고 그런 소리는 들었고 기형아들도 좀 태어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40대 남, 평양시)

서 치료 해주고, 그 기간에는 먹고 싶은 거 최대로 잘 먹이고 이런 사업은 있습니다. (환자는) 핵경복도 사람만 그렇죠. 도 병원에 있는 거 보니까 대체로 많지 않습니다. 12명, 13명. 이런 사람들은 년에 한번씩 꼭꼭 7월이면. (핵 피해자인거는) 그 간호원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살지 이제처럼 영예군인이 맞는데 어디서 일했는가 하면 다 핵, 군사 복무할 때 핵 실험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라고. 그런데서 복무하다가 핵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 간호원이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불구, 하반신 불구도 있고, 눈 아래 찌부러진 사람도 있고. 그저 전혀 몸을 가누기 힘들어서 이제 다 폐허 상태가 된 사람도 있고,

말라서. 의사선생들은 7월이면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 때를 통해서 별나 별나 이런 저런 물자가 다 들어오니까. 그 때문에 그 도 병원에서도 좀 살고, 중앙에서 오는 게 아니고 도 자체에서 겸어서. 중앙 지원 이만큼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한다고 민안반에다 또 분담합니다. 너네는 뭐 해라. 너네는 뭐를 바쳐라. 이러고 분담이 있습니다.” (50대 여, 함경북도 청진시)

### ◆군인 동원 및 피해

“방사능, 오염 이런 거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걱정하죠. 근데 그런 거를 알긴 아는데 우리가 말한다고 뭐가 되는 일이 아니니까. 길주 풍계리 그 쪽에 기형아들 좀 나와요. 방사능 때문에. (북한에 있을 때) 당연히 알죠. 그리고 물이나 이런 능수가 잘 안 돼요. 그런 피해 때문에. 거기 가게 되면 진짜 거리 걸어가는 게 좀 쓸쓸해요. 좀 한적하고, 분명 길주 인데 쓸쓸하고 한적한 분위기예요. 다른 데에 비해.” (20대 남, 함경북도 청진시)

### ◆동원 기술자 사망 사례

“그러서 기형아들이 나오는 거죠. 핵경북도 길주 쪽에 가면 기형아들 제일 많이 나와요. 소문이 아니라 거기 실제로 많이 나와요. 길주에 저 몇 번 가봤어요. 길주에서 멀지 않은 데에 핵 실험장이거든요. 풍계리. 길주 풍계리 그 쪽에 기형아들 좀 나와요. 방사능 때문에. (북한에 있을 때) 당연히 알죠. 그리고 물이나 이런 능수가 잘 안 돼요. 그런 피해 때문에. 거기 가게 되면 진짜 거리 걸어가는 게 좀 쓸쓸해요. 좀 한적하고, 분명 길주 인데 쓸쓸하고 한적한 분위기예요. 다른 데에 비해.” (20대 남, 함경북도 청진시)



미'38노스'가 공개한 북핵실험장 북쪽입구 모습

### ◆기형아 출산

“그러서 기형아들이 나오는 거죠. 핵경북도 길주 쪽에 가면 기형아들 제일 많이 나와요. 소문이 아니라 거기 실제로 많이 나와요. 길주에 저 몇 번 가봤어요. 길주에서 멀지 않은 데에 핵 실험장이거든요. 풍계리. 길주 풍계리 그 쪽에 기형아들 좀 나와요. 방사능 때문에. (북한에 있을 때) 당연히 알죠. 그리고 물이나 이런 능수가 잘 안 돼요. 그런 피해 때문에. 거기 가게 되면 진짜 거리 걸어가는 게 좀 쓸쓸해요. 좀 한적하고, 분명 길주 인데 쓸쓸하고 한적한 분위기예요. 다른 데에 비해.” (20대 남, 함경북도 청진시)

### ◆동원 기술자 사망 사례

“누구 아들이라고 잘 생각은 안 나는 데 그 핵무기 만드는 그런 데 가서 일을 했는데, 군사 복무가 아니죠. 기술, 대학도 아주 고급대학(영변 물리대학으로 추정) 나와서 그런데 가서 일 했는데 그냥 다 폐인이 되가지고 왔더래요. 병에 걸려

가지고, 어떤 병인지도 모르겠는데 마르고, 몸이 뭉땅 핵물질 영향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집에 나와서 있다 죽었다고.” (50대 여, 양강도 김정숙군)

NKDB 북한인권감시본부 제공

##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김광수

발행인 장세규

편집인 김규진

인쇄인 허요섭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대표구독 SC은행 130-20-571787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우리은행 1005-301-884992

등록번호: 서울 기 50089

등록연월: 1990년 7월 19일

간접: 일간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My KIDS**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My KIDS MY KIDS 컴퓨터 활용법

① 접속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② 모바일웹 mykids.ww.or.kr을 접속해보세요.

mykids.ww.or.kr

③ 월드비전의 후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의 생활, 학습, 교육 및 의료에 사용됩니다.

월드비전은 한 아이의 희망을 담아 꿈을 기우고 꿈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0-7000

## 올바른 신앙생활(막1:14,15, 롬 12:1,2, 요 14:1)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목사

제가 2008년 1월 13일 강변교회에서 은퇴한 다음 지난 10년 7개월 동안 주일마다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주로 방문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데 5년 전인 2013년 8월 11일 주일 여기 김천 상남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예수님을 밟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2018년 7월 22일 주일 여기 두 번째로 다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백연수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백연수 목사님이 오늘 교회생활 또는 신앙생활에 대한 설교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믿음”을 지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파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오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 1:15).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죄 사함도 구원도 의롭다 할도 영생도 천국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마 2:5).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마 10:5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사랑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

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히브리서는 지적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데니라”(히 11:6).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귀중한 것은 “믿음”을 지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주일학교 선생님들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 망국하신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때 평양에서 살았고 평양 제5인민학교에 다녔는데 공산당 정부가 일요일 날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학교에 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백연수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백연수 목사님이 오늘 교회생활 또는 신앙생활에 대한 설교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손을 들고 서지 않으면 종을 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손을 들고 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결국 저는 11살 때 부모님과 동생들과 고향을 떠나 38선을 뛰어넘어 남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바로 지키며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깁킴한 밤 중에 어른들과 함께 38선을 넘다가 인민군에서 발각되었습니다. 모두 손을 들고 서지 않으면 종을 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손을 들고 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서 남쪽으로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40여분 동안 언덕을 넘고 과밭을 달리고 목에까지 차는 강을 건너서 무사히 남쪽으로 앉았습니다. 그 때 저에게는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약간의 스릴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살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38선을 넘은 그 사건은 저의 삶과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믿음”을 지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다 더 귀중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의 괴수인 저를 너무 많이 죽복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망국하신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 때문이지만 둘째는 아버지를 비롯한 순교

자들이 흘린 순교의 피 때문이고 셋째는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릴 때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남쪽을 향해서 달려온 일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제가 월남 한지 2년 후에 평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면 이제부터 “믿음”을 지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삶”이 너무 귀중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향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딤후 3:1-5). 오늘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그와 같은 세속화와 인간화로 치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믿음”을 지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회개”와 “참회”를 하지 못합니다. 의인의식을 지닌 사람은 “회개”와 “참회”를 하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도 “회개”와 “참회”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호 통화하는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회개”와 “참회”的 제사를 드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정성껏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的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요 4:23).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 받은 죄인들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이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라리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나리”(롬 12:1).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때, 아브라罕이 아들 이삭을 번체로 드리려고 했을 때, 다윗이 상하고 통화하는 눈물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너무나 기뻐 받으시며 저들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탄 향유를 예수님이 받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찬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몸과 마음과 눈물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 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제사”와 “예배”的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 드리게 하셨고, 신약시대와 교회 시대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모든 정성을 쏟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점점 주일성수의 영적인 유산을 모두 저버리고 세속화와 인간화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이것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행한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날 종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 생활 주일에는 종일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주일을 종일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모든 정성을 쏟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십자가에 나타난 “금줄”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몸에 지니고 “섬김”과 “봉사”的 손길을 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줄”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 설교

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마9:13). “일흔 번째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지나라”(마18:22).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마12:7). “재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的 손길을 펴는 “섬김”과 “봉사”的 삶이 바로 주님 자신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청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 25:34-36). 사도 바울도 믿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없고 “섬김”과 “봉사”가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고전 13:2). 그리고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몸에 지니고 “섬김”과 “봉사”的 손길을 펴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 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람을 더하라”(골3:12-14). 요사이 한국교회가 “회개”와 “예배”와 함께 “섬김”과 “봉사”를 소홀히 하고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에 치중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옥한흠 목사님이 왜 교회가 학원처럼 프로그램과 행사에 치중하고 책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도 시끄러운 음악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치중하는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른들은 다 집어치우고 “회개”와 “예배”와 함께 “섬김”과 “봉사”에 전력을 다한다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 프랜시스와 손양원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의 믿음은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과 “봉사”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감히 이런 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비판적이고 배타적이며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지나셨던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나셨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함께 “섬김”과 “봉사”的 조그만 아주 조그만 부스러기라도 몸에 지니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

카로, 방글라데시로, 북한으로, 중국 연변지역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파키스탄으로 달려가서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섬김”과 “봉사”的 손길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누군가에게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펴면서 제물 되는 삶을 살다가 제물 되는 죽음을 죽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넷째로, “올바른 신앙생활” 이란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염려 두려움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몸에 지니고 그리고 “모험심”과 “담력”을 지니고 담대하게 달려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면서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염려 두려움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평안”과 “여유로움”과 “기쁨”과 “감사”를 몸에 지니고 그리고 “모험심”과 “담력”을 지니고 한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한 평생 “모험적인” 일들을 즐기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11살 때인 1948년 8월 38선을 훈자서 넘은 일을 생각하면 그것은 대단한 “모험”과 “담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와서 서울 중 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1년 동안 총선에서 공부한 다음 1962년 8월 단돈 100불을 가지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것도 대단한 “모험”과 “담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2년 동안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목회와 교수의 일을 했는데 주일성수를 방해하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다가 1977년 11월 20일 난산중앙정보부에 붙잡혀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날 새벽까지 극심한 심문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심문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충고하고 권면한 일과 잠깐 쉬는 시간에 설교 준비까지 한 일도 대단한 “모험”과 “담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99년 1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소신껏 말하고 소신껏 비판하고 소신껏 행동한 일도 대단한 “모험”과 “담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5년 12월 굳게 담한 타식 국경과 아프간 국경을 침범한 밤에 뛰어넘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아프간 무리취득에 세운 학교 준공식에 참석한 일도 대단한 “모험”과 “담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이란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염려 두려움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지니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떠한 혼란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베풀었으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ا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베웠으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1-13). 예수께서는 믿음을 지닐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믿음이 한 겨자씨 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7:20, 농17:6). 올바른 “신앙생활” 이란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염려 두려움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몸에 지니고 그리고 “모험심”과 “담력”을 지니고 담대하게 달려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섯째로, “올바른 신앙생활” 이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가볍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8복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는 복이었고 팔 복의 결론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큼이라”(마 5:12). 예수께서는 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무디라고 불리던 이성봉 목사님은 밤에 자다가 옆집 방앗간에서 방아 꽂는 소리만 들려도 주님의 오시지 않나 하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곤 하셨다는 간증을 저는 중학생 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랑의 원자단 손양원 목사님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수 지은 “주님 고대기”를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 계신 그 곳에 가고 싶어요.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 년을 하루 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천국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유행에 정신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녔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的 부스러기를 조금씩, 조금씩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별했기 때문에 천국을 더욱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 월위아가 네 살 때 저의 걸을 떠났기 때문에 천국을 더욱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8년 8월 31일 밤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란 제목의 글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넣고 다니는 글인데 시간이 있어서 그 글을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귀중한 것은 “믿음”을 지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

맡겨버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몸에 지니고 그리고 “당당함”과 “여유로움”과 “모험심”과 “담력”을 몸에 지니고 “막 빼고 나아가면서” “즐겁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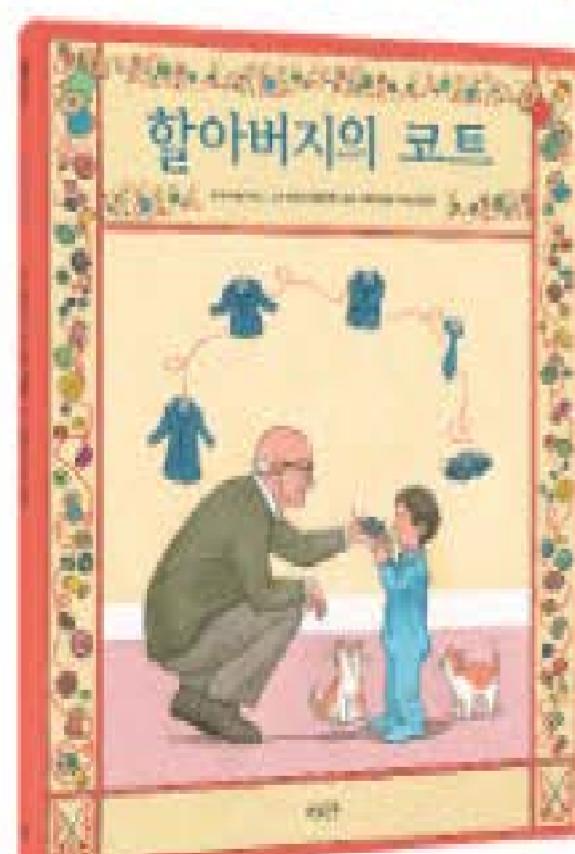
다섯째로, “올바른 신앙생활” 이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가볍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8복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는 복이었고 팔 복의 결론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큼이라”(마 5:12). 예수께서는 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무디라고 불리던 이성봉 목사님은 밤에 자다가 옆집 방앗간에서 방아 꽂는 소리만 들려도 주님의 오시지 않나 하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곤 하셨다는 간증을 저는 중학생 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랑의 원자단 손양원 목사님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수 지은 “주님 고대기”를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 계신 그 곳에 가고 싶어요.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 년을 하루 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천국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유행에 정신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녔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的 부스러기를 조금씩, 조금씩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별했기 때문에 천국을 더욱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 월위아가 네 살 때 저의 걸을 떠났기 때문에 천국을 더욱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8년 8월 31일 밤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란 제목의 글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넣고 다니는 글인데 시간이 있어서 그 글을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귀중한 것은 “믿음”을 지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

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죄 사함도 구원도 영생도 의롭다 함도 천국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라고 주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짜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떤 삶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도리”가 무엇인가? 첫째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둘째로, 정성껏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국교회의 무디라고 불리던 이성봉 목사님은 밤에 자다가 옆집 방앗간에서 방아 꽂는 소리만 들려도 주님의 오시지 않나 하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곤 하셨다는 간증을 저는 중학생 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랑의 원자단 손양원 목사님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큼이라”(마 5:12). 예수께서는 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무디라고 불리던 이성봉 목사님은 밤에 자다가 옆집 방앗간에서 방아 꽂는 소리만 들려도 주님의 오시지 않나 하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곤 하셨다는 간증을 저는 중학생 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랑의 원자단 손양원 목사님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수 지은 “주님 고대기”를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 계신 그 곳에 가고 싶어요.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 년을 하루 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천국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유행에 정신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녔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的 부스러기를 조금씩, 조금씩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별했기 때문에 천국을 더욱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 월위아가 네 살 때 저의 걸을 떠났기 때문에 천국을 더욱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8년 8월 31일 밤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란 제목의 글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넣고 다니는 글인데 시간이 있어서 그 글을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귀중한 것은 “믿음”을 지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죽게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죄 사함도 구원도 영생도 의롭다 함도 천국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라고 주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짜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떤 삶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도리”가 무엇인가? 첫째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둘째로, 정성껏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국교회의 무디라고 불리던 이성봉 목사님은 밤에 자다가 옆집 방앗간에서 방아 꽂는 소리만 들려도 주님의 오시지 않나 하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곤 하셨다는 간증을 저는 중학생 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랑의 원자단 손양원 목사님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수 지은 “주님 고대기”를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 계신 그 곳에 가고 싶어요.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 년을 하루 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 스쿨 라이브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 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잘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남고 해져서 더 이상 뜯 힘을 치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제,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네티아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가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하고, 오래되고, 물풀였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했어요.  
친밀한 명동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분자기 미디어 아트제작

한국 서점 및 문화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문의 02-708-7000 이마주